

광주 100회 촛불집회

숫자로 본 '촛불'과 의미



시민 20만명 참가... 폭력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광주 급남로 거리를 밝힌 촛불집회가 17일 100회를 맞았다. 그동안 2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공식적으로 사용된 초만 13만여개, 모금액은 1억원에 육박한다.

광주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17일 밤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100회 기념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누가 주도하고, 얼마나 참가했나 =광주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은 지난 5월10일. 서울 촛불집회에 자극을 받은 ‘정책반대 시민연대’ 광주·전남지부 네티즌들이 급남로에서 첫 집회를 개최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에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집회를 주도했다.

하루 평균 참여인원은 2천여명, 최대 집회인원은 6·10항쟁 21주년이었던 6월10일 3만명(주최측 5만명, 경찰 추산 1만8천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6월 중반 이후 서울 촛불집회를 이끄는 국민대책회의가 정권퇴진 등 투쟁의제를 대폭 확대하고, 집회가 장기화됨에 따라 참가자가 수십명 단위로 급격히 줄었다.

◇자발적 성금 1억원 = 그동안 촛불집회에 사용된 양초와 종이집은 주최측 집계 결과 각각 12만7천여개와 16만여개, 양초와 종이집 구매비용으로만 2천111만원이 쓰였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온 양초와 종이집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촛불집회 1회 개최 비용은 대략 100만~150만원으로, 자발적 성금도

금으로 충당했다. 지난 16일까지 모인 돈은 9천200여만원. 이중 시민들 모금액은 3천200만원이었고, 시국회의 참가단체 후원금은 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6월10일 저녁에만 800여만원이 걸렸다. 또 촛불집회 동안 자원봉사자와 행사진행요원에게 제공된 김밥은 51일간 1천415줄로 223만원에 달했다고 비상시국회의 측은 설명했다.

◇촛불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와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등 정부와 여당의 정

책을 꼬집는 ‘자유발언’ 참여자 수는 하루 평균 11명, 그동안 1천100명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뿜었다. ‘자유발언’ 시간은 평균 3분, 모두 3천300분이 소요됐다. 자유발언자 중 가장 최연소는 5살, 최고령은 7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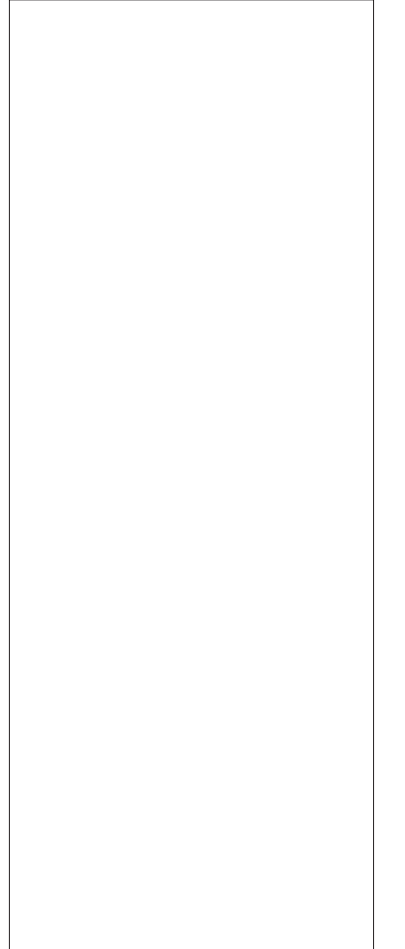
◇광주 촛불의 특징과 향후 일정은 =광주 촛불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 집회’ 기조가 100일동안 지속됐다는 것이다. 수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격렬한 거리시위로 번진 서울과는 달리 모두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경

우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먹물이 담긴 물총을 경찰을 향해 쏘도록 초등학생들에게 지시한 전 한총련 의장 김모(30)씨 단 한 명. 집회 도중에는 큰 마찰도 없었다.

앞으로 광주 촛불은 주말과 특정일에만 열린 것으로 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측은 “의제와 시기에 따라 주말과 특정일에만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불매운동과 지역단위 촛불집회는 지속적으로 진행한 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의 한 묘목 농장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도난당해 2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무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해프닝.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3)씨는 10여년 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묘목농장에 심어놓은 4천여 그루가 도난당해 1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4일 신고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나무를 심고 미국으로 간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땅 주인이 김씨의 오빠 등에게 나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가족들이 500여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